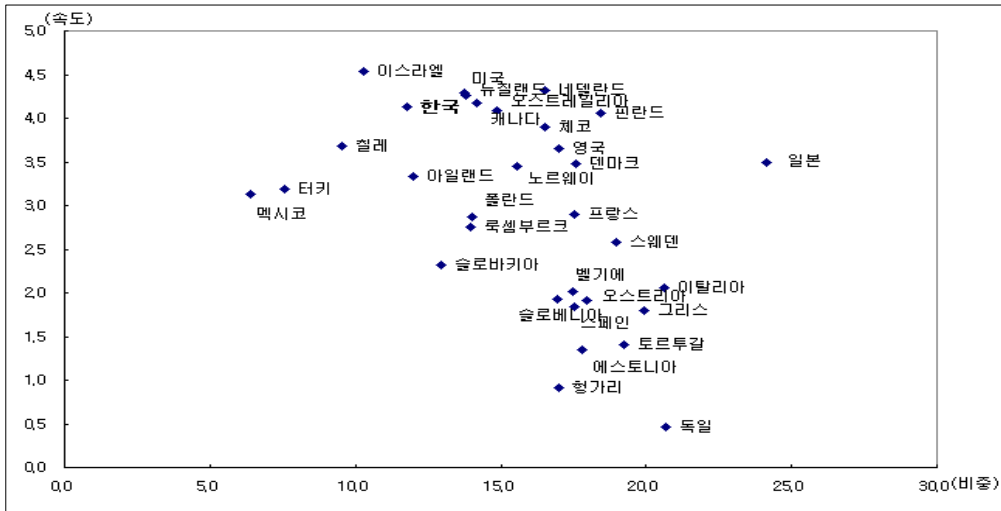


노인(65세 이상 인구)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

-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현재 15.1%로 6,406천 명임.
 -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.3%로 2014년 현재 2백만 명을 넘어섬.
- OECD 회원국(2012년 기준)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(24.1%), 독일(20.7%), 이탈리아(20.6%)였으며, 우리나라는 11.3%로 멕시코(6.4%), 터키(7.6%), 칠레(9.5%), 이스라엘(10.3%) 다음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남.
 -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.1%로 이스라엘, 미국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
[그림 1]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및 증가속도(2012년 기준)

(단위 : %)



자료 : <http://stats.oecd.org>

-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(2011년 기준)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.6%로 압도적으로 높고,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(24.0%), 이스라엘(20.6%), 칠레(20.5%) 순으로 나타남.

-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2013년 74.0%로 나타나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밀집되어 있음.
-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의 소득대체율(2012년 기준)은 45.2%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.9%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.¹⁾
 - 이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70~80% 수준에 크게 밀도는 수준임.
-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, 베이비붐 세대(1955~1963년생)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므로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. **KLI**

(김복순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

1)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시스템이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.